

여수시, '치매 걱정 그만' 동네방네 치매교실 운영

52개 경로당 어르신 748명 대상...치매선별검사·치매예방체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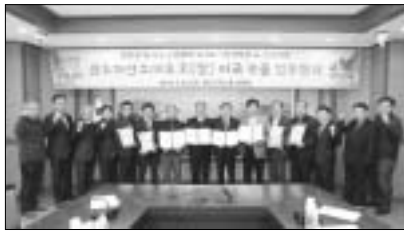


여수시가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반기 동네방네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 시는 관내 52개 경로당, 어르신 740여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수시치매안심센터 전문 강사 6명이 경로당을 순회하는 맞춤형 시민중심 시책이다. 전문 강사는 치매선별검사를 시작으로 운동, 미술, 원예, 음악 등 치매예방과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로당 방문은 1기 26개소, 2기 26개소로 나누어 추진하며, 주 5회 1일 5~6곳의 경로당을 찾아가는 시는 지난 18일 중앙동 고소·한

신아파트 경로당과 만덕동 만흥평촌·동석전·석전·엑스포 경로당에서 올해 첫 치매예방교실을 열었다. 한신아파트 경로당 김 모 할머니는 "나도 치매에 걸린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이 돼서 치매센터로 신뜻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직원이 직접 찾아와 줘서 쉽게 치매검사를 받고 재밌는 놀이도 함께 했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일 만큼 치매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일상적인 문제"라며 "사업을 통한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치매센터의 문턱을 낮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올 하반기에도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고품질 '완도자연그대로미(米)' 세계 시장으로 진출

군·완도군연합농협RPC·SW그린라이프·전리미향 업무 협약



완도군은 완도군연합농협RPC(이하 '농협RPC')에서 생산되는 완도자연그대로미(米)를 지난 2월 26일, 미국 뉴저지 주로 3.2톤의 선도 물량을 수출한 후, 3월 22일 농협RPC와 SW그린라이프, 전리미향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미국 수출에 발돋움

을 내딛었다. 이번 협약은 할랄 인증을 받은 고품질의 완도자연그대로미(米)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미국 시장 등에 수출하게 됨으로써 완도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앞으로 농협RPC에서는 5월 중 계약 체결 후, 메달 12톤씩, 약 100톤 가량을 미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그동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RFC 현대화 시설 교체와 공장을 개보수를 추진하였고, 해풍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 유용 미생물 등을 활용한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브랜드를 출시하여 '완도자연그대로' 농업 정착에 기여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쌀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의 가치가 향상되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완도 쌀을 비롯한 농산물은 물론 수산물 수출에도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완도 농·수산업 동반 성장으로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담양군,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방제 '총력'

담양군이 영농철에 앞서 농경지와 산림지에 동시에 발생하는 외래해충 꽃매미와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밀도를 낮추기 위한 월동난 제거 및 현장기술지원에 한창이다. 담양군은 지난해부터 용면 월계리, 월산면 중월리 일원 등 갈색날개매미충 발생이 많은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월동중인 알집 94ha를 제거했으며, 이달 31일까지 월동난 제거를 위한 집중방제기간으로 설정, 피해방지를 위한 방제작업에 나선다. 또한 월동 중인 아들 해충의 알

집을 제거하는 등 올해 과수농사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꽃매미와 갈색날개매미충 등은 4월부터 알에서 깨어나 잎, 줄기 등에 즙액을 빨아먹어 농작물 생육이 나빠지고 잎과 과일에 떨어진 배설물은 상품성을 떨어뜨려 피해를 준다. 이와 같은 돌발해충은 성충이 되면 방제가 어려워므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부화개시일로부터 약 3~4주 후 80% 이상 부화가 되는 4

월 중에 공동 지상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어 작년도 발생이 있었던 지역은 인근 산림지역까지 월동난을 제거해 초기방제로 밀도를 낮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농업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인 예찰과 방제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암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읍면순회 홍보

알타리무·배 농가 대상 영암군은 지난 21일 작년 농약 안전사용기준 품목별 위반사항을 토대로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은 알타리무,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주산지인 도포면, 시종면, 신북면을 순회하며 집중적으로 PLS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2019년부터 강화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정착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LS는 국내 또는 수입 농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

물에 적용된다. 군은 지난해 5월 농산물품질관리원영암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원영암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관기관과 합동으로 군 단위 T/F팀을 구성했으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PLS시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도에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성료

체험·공연·글로벌 행사 등 70여종의 부대 행사 '호응'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고군면 화동리와 가계 일원에서 열린 '제4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외국 관광객 3만여명 등 총 53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축제는 고군면 화동리와 의

신면 모도리 사이의 바다가 조수 간만의 차로 길이 2.8km에 걸쳐 폭 40여m의 바닷길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 축제는 6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걸맞게 축제 공간을 전통 민속·문화공연, 전시·체험, 글로벌 존 등 테마별 운영과 함께 지난해보다 확대된 체험과 공연, 글로벌 행사 등 70여종을 선보였다.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 모기공원, 진도갯길국, 진도북놀이,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공연 바닷길이 열리기 전 주된 3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북놀이 퍼포먼스인 '신비의 땅을 읊려라' 등 다채로운 공연에 관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응답하라 모세의 기적, 컬러풀 진도, 미라클 레이저 멀티 미디어쇼, 글로벌 음악여행 등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바닷길 해안 도로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 부대 행사를 열어 관광객이 보고·느끼며·즐기면서·머물고 갈 수 있는 축제로 만들었다. 또 진도 흥주, 미역, 김, 울금, 구기자 등 청정 진도 특산물 판매장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 진도군 관광과 관광정책담당 관계자는 "신비한 테마와 아이디어를 접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의 부대행사를 올해 대폭 강화했다"며 "진도 바닷길 축제를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양봉산업 발전 위한 밀원수 식재

우수 밀원수 헛개나무·쉬나무 각 400그루 식재

장흥군은 지난 22일 장동면 반산리에서 봄맞이 식목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양봉산업 발전과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민·관이 함께하는 식목행사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황주홍 국회의원을 비롯

해 장흥군,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양봉협회, 한봉협회, 한국양봉농협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수 밀원수로 알려진 헛개나무, 쉬나무 각 400그루

를 식재했다. 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밀원수 식재를 확대해 지역 양봉산업의 발전과 양봉농가 소득향상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중순 군수는 "숲을 가꾸는 것은 지역 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산림자원을 가꾸고 활용해 지역민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햇빛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